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계 연구

- 하우어워스와 바르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창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용주 (숭실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하우어워스: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대립으로서 자유민주주의

1. 예수 내러티브: 사회윤리로서의 교회윤리의 토대
2. 예수 내러티브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비판
3. 자유민주주의의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

III. 바르트: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의 상응으로서 민주주의

1.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교의학과 윤리학의 토대
2.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해
3. 민주주의 국가 형성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03>

* 주저자 jescuskorea@hanmail.net

** 교신저자 imagodeikr@ssu.ac.kr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liberal-democratic
state: Through comparison of Hauerwas and Barth

Ph.D. Cand. Lee, Eun Chang (Soongsil Univ.)
Prof. Lee, Yong Joo (Soongsil Univ.)

Hauerwas and Barth share a similar theological starting point in that they explore the task and role of the church through Christological concentration. However, they express almost opposite posi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or, specifically, church and liberal-democratic political system. While Hauerwas strongly criticizes the church's assimilation into a liberal democracy, which pledges religious freedom, Barth regards liberal democracy as an 'analogy' to the Kingdom of God proclaimed by the church and emphasizes its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liberal democracy. This paper does not aim to force a choice between the two poles. Instead, the article shows that an exclusive attitude toward liberal democracy, as Hauerwas does, is not the only conclusion that results from the Christological concentration of theological exploration. That church's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to develop liberal democracy can be an alternative conclusion of Christological concentration will be issued. In the process of comparing Hauerwas and Barth, it will come to light that Hauerwas' assessment of his own ecclesiological, Christological attention and his criticism of liberal democratic state as being a legacy of Barth's theology is nothing but a misunderstanding to Barth's thought.

Key words: Ecclesiology, Jesus narrative, Christological concentration,
Hauerwas, Barth, liberal democracy

I. 들어가는 말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행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실현되었음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ecclesia)라는 개념 자체가 함축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하나님 자신에 의해 ‘불리어진 사람들’ 혹은 ‘선택된 사람들’(ekkletoi)의 모임이며,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혹은 차이를 근원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다.¹⁾ 이러한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 자체로 교회가 국가 혹은 자신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제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특히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구체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는 하우어워스와 바르트가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계를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여 교회가 보다 나은 정치적 기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고유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제안하고 있는지가 비교·검토될 것이다.

하우어워스와 바르트는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였지만, 자신들의 신학적, 윤리적 작업들을 철저히 교회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하우어워스 스스로도 기독교사회윤리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바르트의 교회중심주의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하우어워스와 바르트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상이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1) Hans Küng, *Die Kirche*, 정지런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108.

것이다. 본고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견 중 어느 하나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교회의 단일한 입장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써 교회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상이한 유형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교회가 시민사회의 공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바르트의 입장이 하우어워스의 견해보다는 더 유연한 참여와 행동의 가능성을 제공하리라는 것이 논자들의 견해이다.

두 사람을 다루는 각각의 장들은 모두 똑같이 3개의 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3개의 절들은 모두 각 당사자들의 신학적·윤리적 핵심, 신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교회의 고유한 기여방식에 관한 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내용들을 서로 병렬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두 사람의 비교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구조지어져 있다.

II. 하우어워스: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대립으로서 자유민주주의

1. 예수 내러티브: 사회윤리로서의 교회윤리의 토대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흑인 인권운동, 베트남 전쟁 등과 결합된 윤리적 혼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우어워스는 현대 미국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을 제공하고자 고심해 왔다. 사회 윤리적 고민들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거의 최종적인 대답은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윤리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참으로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²⁾이아말로 교회의 사회윤리적 과제는 것을 그 핵심 테제로 삼는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고³⁾, 이를 하우어워스는 다음과 같이 명제화하여 선언한다: “교회는 사회 전략을 갖지 않는다. 교회 자체가 사회 전략이다.” 교회가 자신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이다.⁴⁾ 아래에서는 하우어워스에게 그 자체로 사회윤리로 기능하는 교회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치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예수 내러티브’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세속국가에 대립하는 ‘정치공동체(polis)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우어워스에게 기독교와 교회는 그 자체로 “정치적”(political)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난 큰 변화에 동조해 사는 새 백성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교회란 “복음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따라 세상 한 복판에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는 “대항문화 사건”에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자체적인 삶의 방식을 지닌 공동체적 구성체, 즉 “새 폴리스”이다.⁶⁾ 교회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하우어워스의 주장은 이처럼 교회는 교회가 아닌 정치적, 사회적 구성체들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작동 원리를 지닌 ‘polis’ 즉 사회적 구성체라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이처럼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들과는 구별되고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2) Stanley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30.

3)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Labyrinth Press Company, 1988), 112.

4)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사람, 2018), 67f.

5) 위의 책, 43.

6) 위의 책, 51.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채용할 필요 자체가 없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새로운 사회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교회와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교회는 양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현대사회의 기본 구조를 용인하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와 세상의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사회윤리적 노력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봉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교회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히틀러를 열렬히 지지했던 독일 교회의 모습이다. 이에 반해 하우어워스는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선포하고 강조했던 바르트의 ‘바르멘 선언문’⁷⁾이야말로 교회와 세상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한다.⁸⁾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타협하지 않고 증언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요더의 ‘고백교회’처럼,⁸⁾ “제자도에 따르는 희생을 분명히 알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이며,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주된 정치적 과제”이다.⁹⁾ 이처럼 복음의 요구에 부합함으로써 세상에 대립하는 대안적 정치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를 형성하는 유일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7) 위의 책, 69.

8) 위의 책, 70f. 이때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행동주의 교회, 회심주의 교회, 고백 교회로 구분하는데, 이는 신정주의적 교회, 영성주의적 교회, 신자들의 교회로 구분한 요더의 분류에 기초한 것이다. 이 분류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John Howard Yoder, “A People in the World: Theological Interpretation,” James Leo Garrett, Jr. ed., *The concept of the believers’ church: Addresses from the 1967 Louisville conferenc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69), 250-283.

9) 스텐리 하우어워스·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75. 이처럼 복음의 정체성에 부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정치(the polity of the church)”라고 부른다: 스텐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151-152.

아래에서 다루어질 ‘예수 내러티브’이다.

둘째, 기독교 사회윤리는 곧 교회윤리이고, 교회윤리는 철저히 예수 내러티브에 기초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우어워스는 기독교사회윤리가 대체로 사회에 대한 원리와 정책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다.¹⁰⁾ 소위 기독교 사회윤리가 무엇이 보다 나은 사회의 형태인지에 대해 마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서로 동일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한 채 세상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행위에 대한 이해를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그 자체로 “예수와 사회윤리를 분리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하우어워스는 “예수 이야기야말로 사회윤리”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지시하는 예수의 삶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공유되는 것을 통해 “예수 이야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해” 이 예수의 진실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윤리로서 교회윤리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역설한다.¹¹⁾ “예수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상응하는 세상과 사회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규정”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 준 예수 자체가 사회적, 정치적 대안이며, 내러티브 형식으로 전해지는 예수의 삶과 사역을 제외하면 기독교사회윤리를 설명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¹²⁾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도와 예수의 십자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는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만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교회됨이 실현될 수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정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10)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28f.

11) 위의 책, 83ff.

12) 위의 책, 99f.

공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실재에 참여하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 윤리적 책무는 “예수 이야기를 바르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¹⁴⁾과 동일하다.

2. 예수 내러티브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비판

하우어워스의 사회윤리적 관심사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며, 예수 내러티브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교회의 참 본질에 부합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복음에 입각한 정치적, 윤리적 대안이다.¹⁵⁾ 이런 점에서 하우어워스는 교회와 세상을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입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우어워스는 보수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 모두가 세속과의 타협, 즉 “일종의 콘스탄틴적 타협”에 빠져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비판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들 모두가 “교회의 일차적 목적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하우어워스가 민주주의 정치제도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결함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와 그 사상적 토대로서의 자유주의¹⁶⁾가 모두 ‘개인’의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

13) 위의 책, 107.

14) 위의 책, 113.

15) 상기한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20(2010), 175ff.

16) 하우어워스는 ‘자유주의’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특수성의 억압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는 계몽주의의 기획으로 탄생한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Stanley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War and Survival in a Liberal Socie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18.

및 공동체와의 관계를 제거해 버리고 만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일차적 실체는 개인이며, 사회의 주된 존재 이유는 개인의 독특성을 지원해주는” 것에 머물고 만다. 이렇게 개인의 가치만이 강조되는 사회는 결국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시장으로 변해” 버리고 말며, 이 거대한 욕망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독재”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독재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사회”에 불과하다.¹⁷⁾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는 개인에게 최고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고, 그 결과 개인은 자기중심주의와 고독, 피상성, 왜곡된 소비자 중심주의에 빠지고 말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폐단이다.¹⁸⁾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미국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오해하게 되었는가? 이는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의 비준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산물인 ‘종교의 자유’가 교회와 국가 사이의 오랜 대립 관계를 해소시켰다고 믿으면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어야 할 긴장감을 상실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곧 “교회의 임무”¹⁹⁾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미국의 그리

17) 스탠리 하우어워스·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54f.

18) 위의 책, 78.

19)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백지윤 역, 『교회의 정치학』 (서울: IVP,

스도인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곧 기독교를 지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라²⁰⁾ 여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세뇌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콘스탄티누스에 물들게 된 과정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할 자유’에 취해버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진리로 선포할 자유’의 중요성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다. 동시에 국가는 복음을 시민 종교로 만들어 사회를 지원하도록 했고, 교회를 시민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어 정치와 무관한 존재로 만들었다.²¹⁾ 이로써 종교는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 쫓겨나 사적 영역으로 내몰렸고, 기독교 사회윤리 역시 단지 자유주의의 정치적 지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데 만족하고 말게 된 것이다.²²⁾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회의 콘스탄틴적 타협에 반해서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그저 국가로부터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가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해 지니는 진정한 “교회의 자유”이다.²³⁾ “민주주의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우선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상승배”에 지나지 않는다.²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가 개인의 욕망의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 사회,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교회를 교묘하게 지배하는 자유주의

2019), 99f.

20) Stanley Hauerwas, “A Christian Critique of Christian America,” *Religion, Morality and the Law* 30(1988), 117.

21)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102.

22) 위의 책, 46f.

23) 위의 책, 101.

24)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215.

사회는 더 이상 교회가 지지해야 하는 정치제도가 아니다. 교회는 우선 “자유주의 정치의 위선을 일깨워주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인이나 사회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세주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의 권력들을 어떻게 제한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로부터 교회는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예수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전통이 살아 있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을 통해서만 교회는 “교회 자체의 방식에 충실”하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에 대한 “대조모델”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²⁵⁾

3. 자유민주주의의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

교회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추구하는 구원에 이미 정치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콘스탄틴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에 맞서 싸웠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악한 권력에 대한 심판과 동일시했다는 데에서 드러난다. 초대교회는 구원을 정치적 행위로 이해했던 것이다.²⁶⁾ 구원은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이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²⁷⁾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유일한 정치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가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는 교회가 ‘덕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있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

25) 위의 책, 169ff.

26)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52.

27) 위의 책 53f.

는 개인이 스스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전통, 형이상학적 관념, 종교적 신념 등을 사회의 윤리적 방향 수립에 있어서 배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하우어워스는 평가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주의 사회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역사와 도덕관이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는 갈등을 피할 길이 없고 개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권력과 폭력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도덕적 잠재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한 공동체적 훈련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하우어워스는 “개인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훌륭한 순응주의적 소비자”를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한다.

개인주의적 윤리에 대한 교회의 고유한 대안으로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지니는 본래적인 덕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훈련 공동체를 지향했고, 훈련은 세상 권세와 맞설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원동력이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경도됨에 따라 훈련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와 더불어 기독교 구원의 본래적인 사회적 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교회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덕과 성품을 갖춘 인격적 성장을 위한 훈련 공동체라는 본래적인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훈련은 “권위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게 만들고, “이성적 판단에 필요한 덕을 겸비”하도록 만든다.²⁸⁾ 권위를 가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가진 내러티브, 특히 예수 내러티브를 통해 훈련된 사람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자유주의 신념과 결별하고 도제식 훈련을 통해 개인의 덕과 성품

28) 위의 책, 134f.

계발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 자유주의가 배척한 ‘공동체’와 ‘덕의 전통’을 회복해 ‘덕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덕과 성품 계발을 통해 공공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정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회의 책무는 “신실한 성품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라는 정치체제에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교회의 고유한 방안이다²⁹⁾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우어워스는 교회와 예수 내러티브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동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교회를 세상과는 구별되는 덕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강조한다. 교회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입장은 대체로 이원론적 경향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우어워스식의 사고방식은 결국 교회와 세상의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³⁰⁾ 하지만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서로 대립적으로 간주하는 것만이 교회중심적, 그리스도중심적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유일한 결론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하우어워스와 유사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라는 방법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29) 스텐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18.

30) 예를 들어 거스타프슨은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는 명분하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의 철수를 정당화”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James Gustafson, “The Sectarian Temptation: Reflections on Theology, the Church and the University,” *Proceedings of the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40 (1985), 93. 스택하우스도 이와 유사하게 평가한다. Max L. Stackhouse, “In the Company of Hauerwas,” *Journal for Christian Theological Research* 2/1 (1997), 1-30. 반면, 문시영은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가 “기존의 현실정치에 대한 사회정책의 제시 및 사회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185.

교회의 기여를 모색하는 바르트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바르트: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의 상응으로서 민주주의

1.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교의학과 윤리학의 토대

바르트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바르트의 신학과 정치적 실천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바르트와 사회주의 운동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³¹⁾ 이때 바르트의 신학적 작업이 그의 사회주의적 실천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밝힌 뵙엘의 작업은 양자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³²⁾ 한편 바르트는 히틀러에 의해 독일에서의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스위스 바젤로 돌아온 1935년 이후 『칭의와 법』(1938),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1946)³³⁾라는 두 편의 강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밝힌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의 삶을 위한 정치체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는 뵙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신학적 사유를 토대로 한다. 흥미롭게도 당시의 바르트의 신학은 하우어워스의 윤리가 예수 내러티브와 교회를 중심에 두는 것처럼, 철저히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 무렵 바르트는 『로마서주석』과 더불어 시작된 소위 ‘위기의

31) 이용주, “칼 바르트의 신학과 사회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로마서 주석 2판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조직신학논총』 49(2017), 209-248.

32) 이를 뵙엘은 바르트에게 “신학이라는 일과 사회주의 사이에는 근거지우기의 관계”가 있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Eberhard Jüngel, “Die theologischen Anfängen. Beobachtungen,” *Barth-Studi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2), 126.

33) Karl Barth, *Rechtfertigung und Recht.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Zürich: TVZ, 1989).

신학' 단계를 지나 '교의학'의 단계로 진입한 후였다.³⁴⁾ 1932년 『교회교의학』 I/1이 출판된 이후 바르트의 교의학 작업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간략히 묘사될 수 있다: 첫째, '교회'와의 연관성, 둘째, 교회와 신학의 출발점으로서의 '그리스도론'.

첫째, 『교회교의학』 시기의 바르트의 신학적 특징은 교리학을 철저히 '교회'라는 맥락 가운데 정위시키고 수행한다는 데 있다. 『교회교의학』 I/1에서 바르트는 '기독교'라는 "거대한 단어"를 '교회'라는 개념으로 대체함으로써 교의학은 결코 "자유로운" 학문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교회"라는 영역에 결합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학문임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힌다.³⁵⁾ 교의학은 "교회에게 고유한 하나님에 대한 언술(Rede)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회의 학문적인 자기점검"이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교의학의 과제이며, 이런 점에서 신학의 한 분과로서 교의학은 철저히 "교회의 기능"이다.³⁶⁾

신학을 교회의 기능으로 정의함으로써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인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정초지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언술이 교회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자신의 활동에 의해 수립된 교회의 존재(Sein der Kirche)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신학의 학문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신학적 진술이 참된지의 여부는 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언술이 교회의 존재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교회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수립되고, 그를

34) 『칭의와 법』이 발표된 1938년에는 『교회교의학』 I부 전체(1, 2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가 발표된 1946년에는 『교회교의학』 III/1(1945)까지의 출판이 완료된 상태였다.

35)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1 (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2), VIII.

36) 위의 책, 1.

선포하는 한에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르트는 “*교회의 존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³⁷⁾ 신학을 교회의 과제로,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시킴으로써 바르트는 『교회교의학』 전체를 ‘그리스도론으로서의 신학’으로 구성하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론으로서의 신학’이라는 말은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논리구조로 구성된 『교회교의학』 전체를 가장 간략하게 묘사하는 표현이다. 상기한 대로 바르트는 신학을 교회의 기능으로, 교회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림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로운 내적 사림 안에만 그 근거를 가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추후적 진술이 된다.³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곧 “*계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신*”³⁹⁾이며, 이 계시에 대한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본질의 통일성*”과 “*인격들의 상 이성*”의 통일성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유로운 사랑에만 기초하여 자기 스스로를 주권적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신다*.”⁴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계시된 인간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신학의 과제이자 내용으로 파악함에 따라 『교회교의학』에서 바르트는 전통적인 신학의 주제들을 모두 철저하게 이 관점에 입각하여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교회교의학』 III/1의 ‘창조론’에 의하면 창조에 대한 인식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자기증언

37)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1, 2f.

38) Christoph Schwöbel, “Theology,” John Webst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1.

39)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1, 31f.

40) 위의 책, 324.

의 수용과 이에 대한 응답 안에서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만⁴¹⁾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의 실질근거 (Realgrund)”⁴²⁾이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약의 외적 근거”⁴³⁾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체결된 하나님의 계약이 “창조의 내적 근거”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관계와 인간과 맺는 관계가 오로지 하나님의 자기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파악되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교의학』 I/1 출판 이후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히 “그리스도론적 집중”⁴⁴⁾에 따라 진행된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인식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삼위일체론, 창조론, 인간론, 교회론과 윤리 등 모든 측면에서 일관되게 묘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은 철저히 ‘신학적’이다.⁴⁵⁾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론으로서의 신학’이라는 표현은 『교회교의학』 이후 바르트 신학의 특징을 가장 간략하고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1930년대 중반 무렵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한 ‘교회 중심적’ 신학으로의 전환 가운데에서, 철저한 ‘그리스도론적 집중’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철저한 “*교회의 신학자*”(church theologian)⁴⁶⁾로서 바르트

41)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1 (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45), 1.

42) 위의 책, 103.

43) 위의 책, 258.

44) Eberhard Jüngel, “Einführung,” *Barth-Studi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2), 50.

45) 이 맥락에서 그래프는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전체는 그 말의 엄격하고도 좁은 의미에서 오직 신학”이라고 평가한다: Friedrich W. Graf, “Die Freiheit in der Entsprechung zu Gott. Bemerkungen zum theozentrischen Ansatz der Anthropologie Karl Barths,” *Der heilige Zeitgeis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81.

46) John Webster, “Introducing Barth,” John Webst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0.

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학적 진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전개하고 점검하고자 했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바르트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도출해 내고 있는지가 이제 다루어질 차례이다.

2.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해

교회의 학문으로서 신학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바르트의 평가와 실천 역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도출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34년에 작성된 〈바르멘 신학 선언〉이다.

1933년에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Deutsche Christen)이라는 어용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루트비히 뮐러를 제국감독으로 임명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서 독일교회를 지배함으로써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선전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다. 당시 히틀러를 지지하는 독일 교회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교회가 국가의 부속기관이 되어버리는 것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⁴⁷⁾는 선언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히틀러를 통해 매개되는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국가사회주의를 정당화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만이 교회의 유일한 과제임을 명시함으로써 히틀러의 교회지배와 독일 교회의 국가기구화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한다.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 이를 바르멘 신학선언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원지인 교

47)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9), 93.

회가 그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이나 권세들, 혹은 위인들이나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래야만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⁴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요 교회가 선포해야 할 분이라는 신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바르트는 교회를 국가기구화하려는 히틀러의 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바르트가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은 그가 국가와 교회를 서로 철저히 ‘대립’하는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당시 바르트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히틀러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고 실천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국가를 교회와는 달리 타락하고 악한 영역으로 간주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르트는 나치정권에 의해 스위스로 쫓겨난 후에 출판한 『칭의와 법』에서조차 국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신약성서에서 종종 국가권력이 악마적 권세로 간주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단지 “심연에서부터 나온 짐승”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교회의 “최종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르트의 입장이다.⁴⁹⁾ 그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왕국과 다른 왕국들, 혹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는 “내적이고도 필연적인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이 『칭의와 법』 전체의 목표라고 밝힌다.⁵⁰⁾

바르트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분되지만, 서로 분리되거나 혹은 대립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도성을 희망하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국가가 삶의 최종적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

48) Frank Jehle, *Lieber unangenehm laut als angenehm leise*, 이용주 역.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96.

49) Karl Barth, “*Rechtfertigung und Recht*,” Karl Barth, *Rechtfertigung und Recht.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Zürich: TVZ, 1989), 18.

50) 위의 책, 8.

상의 도성 즉 국가에 대한 극단적 부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정서”⁵¹⁾를 지닌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보면, 국가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토대 지어지고”⁵²⁾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국가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봉사하는 상이한 두 영역이다. 교회는 국가 가운데 존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실현된 “칭의에 대한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법”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러나도록 한다.⁵³⁾ 한편, 국가는 교회와 국가의 차이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참되고도 정당한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 [교회가: 논자]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딤후 2:2)”⁵⁴⁾ 교회를 지원한다. 국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칭의에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각각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와 국가는 이렇게 “상호간의 보장”을 주고받는다.⁵⁵⁾

1930년대 중반의 바르트 신학의 핵심 기조를 이루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상기한 것처럼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 대해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상이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이한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 기여한다. 이때 바르트는 교회와 국가가 상대방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51) 위의 책, 25.

52) 위의 책, 26.

53) 위의 책, 29.

54) 위의 책, 21.

55) 위의 책, 31f.

데, 바로 여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가 드러난다.

국가는 교회에게 칭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돕는다. 따라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가 칭의의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칭의의 복음의 설교라는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고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한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기여”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교회는 국가가 결코 하늘의 예루살렘의 영원한 법을 지상에 수립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법을 수립”하도록 부름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⁶⁾ 칭의의 복음의 자유로운 설교라는 국가로부터 구분되는 교회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함으로써 교회는 국가가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한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기독교 교회가 “민주주의” 즉 “모든 시민들의 책임적인 활동에 기초한 국가”를 지지하는 이유이다.⁵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국가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는 바르트의 입장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독특한 종교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세속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교회의 고유한 신앙고백의 관점에 입각해서, 즉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해명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신학적 이해가

56) 위의 책, 46.

57) 위의 책, 44.

지니는 독특성이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리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롭고 책임적인 활동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 민주주의 국가 형성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

『칭의와 법』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에 집중하는 반면, 그로부터 8년여 후 출판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1946)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구체적인 형태와 이를 위한 교회의 정치적 실천 방안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회와 국가라는 개념이 각각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고, 또한 전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내심원으로 후자를 그 외심원의 관계로 좀 더 직관적이고 도식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본 논지는 『칭의와 법』에 나타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절에서는 유사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르트가 민주주의를 위한 교회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서도 바르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과 관련하여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시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역할을 논하면서, 그 기도가 진지하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시민 공동체를 위해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힌다.⁵⁸⁾ 시민 공동체의 사안에 대해 “활동적인 개입”

58) Karl Barth,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Karl Barth, *Rechtfertigung und Recht.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57.

을 통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중심으로 한 내심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의 형태로서 바르트는 상당히 많은 경우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중 핵심적인 사례들만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시민 공동체를 위해 교회가 시민 공동체 가운데에서 추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는 ‘자유’이다.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과 사랑의 영을 통해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 자체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에 기초하여 수립된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 공동체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자유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개별 시민에게 시민 공동체를 통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자유를 긍정한다.” 이때 바르트는 자유가 단지 선언되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 각자가 교육, 예술, 학문, 신앙 등 각각의 다양한 삶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입장과 선택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적법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⁹⁾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 역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정치적 지향점이다.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한 분 주님 아래에서 한 영 안에서 받은 세례에 기초하여 동일한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마치 한 분 주님과 하나의 성령 아래에서 모든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평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든 시민들의 자유와 책임의 평등, 즉 모든 시민들 연합하고 의무지우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신분과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

59) 위의 책, 69.

다.⁶⁰⁾

자유와 평등의 사례들은 바르트가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시민 공동체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에 의해 형성된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따라서 교회가 이 복음에 부합하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야말로 이처럼 복음에 부합하는 인간들의 사회적 삶의 정치 형태이다: “복음으로부터 도출되는 그리스도교적·정치적 방향과 노선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국가라고 부르는 측면을 향한 경향을 지닌다.’⁶¹⁾

바르트가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학적 동기들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르트가 현존하는 민주주의 형태들(스위스식, 미국식, 프랑스식) 중 하나를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정치적 이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로마서주석』 시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하나님과 세상의 ‘질적 차이’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귀결이다. 바르트는 다만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국가 같은 정치적 지향점들은 교회가 시민 사회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정치적 실천들의 “사례들”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례들은 은총의 복음에 의해 존재하게 된 교회가 자신들이 신앙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민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상응들, 유비들”⁶²⁾일 뿐이다. 그 어떤 정치체제도 복음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복음이 교회를 정치적 실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복음에 기초하여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믿음과 희망에 부합하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60) 위의 책, 70.

61) 위의 책, 75f.

62) 위의 책, 72.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비’적 형태를 지향하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지속적인 방향, 지속적인 노선”⁶³⁾이다.

IV. 나가는 말

신학과 윤리학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바르트와 하우어워스는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바르트는 교회의 선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신학적 이해로부터 교회가 국가와 형성해야 할 적절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자 했다. 하우어워스는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바르트의 태도야말로 “복음을 세상의 현실에 맞추기보다 교회를 복음에 맞추려” 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바르트가 자신의 교회윤리의 토대가 되었다고 밝히기까지 한다.⁶⁴⁾ 예수 내러티브에만 집중하면서 교회 중심적 윤리를 형성하고자 했던 하우어워스의 관심사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바르트에게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신학적 출발점과 논리전개의 형식적 유사성이 곧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 혹은 교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내용상의 유사성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우어워스는 현대사회가 과도하게 개인의 가치에만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와 전통이 지니는 윤리적 가치가 상실되고 만 것, 그리하여 사회가 개인의 욕망의 투쟁의 장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의 원인을 자유주

63) 위의 책, 74.

64) 스텐리 하우어워스·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48.

의와 민주주의가 제공했다고 보았다. 그 근원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교회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인해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동화되어 버리고, 세속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적, 윤리적 대안으로 기능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것을 하우어워스는 매우 우려했다.

한편, 바르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라는 신학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코 하우어워스처럼 교회와 국가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분리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에게는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에 단지 대립해 있기만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와 시민사회 내에서 민주주의가 증진되도록 도울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는 하우어워스의 생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따라서 바르트를 일종의 자기의 교회윤리의 모범처럼 여기는 하우어워스의 평가는 바르트에 대한 오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우어워스와 바르트의 견해 중 교회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에 원칙적으로 부합하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우어워스의 경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거의 원칙상의 반대 의견을 표방하면서 교회다움의 회복만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따라서 언제나 교회와 국가 혹은 교회와 시민사회 모두의 거류민으로 살아야만 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시민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세상 혹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비판적 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 바르트는 자유와 평등이

현실화되도록 민주주의를 지지함으로써 교회는 시민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비’ 혹은 ‘비유’가 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교회와 시민사회,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 사이의 구분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거나 분리된 폐쇄적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히틀러에 대한 바르트 자신의 정치적 저항이 보여주듯 협력은 결코 무비판적인 동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복음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의사소통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자체가 성숙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바르트의 자유민주주의의 이해는 하우어워스의 그것에 비해 보다 의사소통적이고, 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 교회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물론 하우어워스는 이것이 콘스탄틴적 타협이 아닌지 의심하겠지만.

참고문헌

-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9.
-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20(2010), 163-189.
- Barth, Karl. *Rechtfertigung und Recht.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Zürich: TVZ, 1989.
- _____. *Die Christliche Dogmatik im Entwurf. I. Band. Die Lehre vom Worte Gottes, Prolegomena zur christlichen Dogmatik 1927*. Karl Barth-Gesamtausgabe, Band 14. Zürich: TVZ, 1982.
- _____. *Kirchliche Dogmatik I/1*. 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2.
- _____. *Kirchliche Dogmatik III/1*. 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45.
- Graf, Friedrich W. “Die Freiheit in der Entscheidung zu Gott. Bemerkungen zum theozentrischen Ansatz der Anthropologie Karl Barths.” *Der heilige Zeitgeist*.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81-423.
- Gustafson, James. “The Sectarian Temptation: Reflections on Theology, the Church and the University.” *Proceedings of the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40, 1985, 83-94.
- Hauerwas, Stanley. *After Christendom?*, 백지운 역. 『교회의 정치학』. 서울: IVP, 2019.
- _____.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Hauerwas, Stanley. *In Good Company: The Church As Poli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 _____. *Against The Nations : War and Survival in a Liberal Socie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 _____.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A Christian Critique of Christian America.” *Religion, Morality, and the Law* 30, 1988, 110-133.

- Hauerwas, Stanley & Willimon, William H.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사람, 2018.
- Jehle, Frank. *Lieber unangenehm laut als angenehm leise*, 이용주 역.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Jüngel, Eberhard. *Barth-Studi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2.
- Küng, Hans. *Die Kirche*, 정지런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Stackhouse, Max L. "In the Company of Hauerwas," *Journal for Christian Theological Research* 2/1 (1997), 1-30.
- Schwöbel, Christoph. "Theology." Webster, Jo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7-36.
- Webster, John. "Introducing Barth." Webster, Jo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16.
- Yoder, John Howard. "A People in the World: Theological Interpretation." Garrett, James Leo, Jr, ed. *The concept of the believers' church: Addresses from the 1967 Louisville conference*. Scottdale, PA.: Herald Press, 1969, 250-283.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06일

심사게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3일

 • 국 문 초 록 •

하우어위스와 바르트는 모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교회의 과제와 역할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면에서 보자면 유사한 신학적 출발점을 공유한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두 사람은 교회와 국가, 혹은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관계에 대해 거의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우어위스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교회가 일방적으로 동화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면, 바르트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비'로 간주하면서 그 성숙과 발전을 위해 교회가 협력할 것을 강조한다. 본고는 일종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하우어위스처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타적 태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신학적, 윤리적 작업의 유일한 결과는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태도 역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이를 위해 하우어위스와 바르트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바르트의 비타협인 교회론적 집중, 그리스도론적 집중을 자신의 배타적인 교회윤리의 준거점으로 간주하는 하우어위스의 이해가 사실은 바르트에 대한 오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제어: 교회론, 예수 내려티브, 기독교론적 집중, 하우어위스, 바르트, 자유민주주의
